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보도자료

| 본부장 윤후덕·인태연 | 수석부본부장 민병덕·박용갑

보도일시	25.05.26.(월)	배포일시	즉시 배포/사진 3매
문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원국 / 02-6788-3201, 3631 담당자 : 윤후덕의원실 비서관 강지영/ 010-8654-8018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18개 민생 단체와 정책협약 체결

- 자영업자들 “현 경기 상황 ‘위기 사항’, 새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 시급”
- 온라인플랫폼 법 제정과 지역 화폐 확대 요구
- 청년상인들 청년상인기본법 제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이하 민생본부)’는 26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민생단체 정책협약식과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민생본부 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 수석부본부장,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18개 민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청년상인네트워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 ▲(사)한국상권총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인천골목상권총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광주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보건복지학회 등이다.

민생살리기본부 교통물류복지분부는 ▲국민 이동성 향상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지방 생활물류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교통물류산업 근로자 보호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제안했다.

협약식에 앞서 윤후덕 민생본부 본부장은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내수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란 생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수석부본부장도 “윤석열 정권은 소상공인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그릇된 생각을 가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한만큼 그 몫을 찾도록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새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내수 경기가 붕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명예회장도 “경기가 어려워 중소기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새 정부에서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철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도 “쿠팡 때문에 많은 대리점이 문을 닫거나, 폐업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유진 청년상인네트워크 회장은 “청년소상공인은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제 주체”라며, 청년상인기본법 제정이 새 정부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민생본부는 이날 정책협약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또는 당의 주요 민생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끝.

[첨부 사진]



